

나레이션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상은 추축국과 연합국의 진형에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양분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치열한 두 세계의 분쟁은 국공내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형태로 치열한 싸움으로 번지기에 이르렀다. 허나 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에서는 이러한 물결을 막기 위해 권위주의 독재를 시작하고 이러한 수단 중 하나가 민중의 삶에 많은 것들에 제약을 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명분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한다는 그럴싸한 의도에서 시작되기 마련이었다.

예를 들자면 게임과 만화와 같은 오락요소의 탄압에 대한 사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성조차 없었으며 반국가적이고 유해한 것들에게서 국민들의 사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해외접속을 크게 제한했다. 즉 저 윗동네에서 사용하는 광명망과 크게 차이가 없던 것이다. 사실 모든 권위주의적 조치가 한번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원래 큰 일은 비교적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시작에도 명분이 중요하다.

그 첫 타자는 바로 아이스크림이었다. 80년대 중반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확히는 아이스크림을 과하게 먹었을 때 발생하는 아이스크림 두통 탓인데 당연하지만 이러한 걸로 바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국가기관에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후에 이 아이가 사망은 타박상 즉 머리가 아프다며 있다가 잘못 넘어져서 일어난 사고인지라 엄밀히 따지자면 이 문제에 아이스크림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

허나 여론은 진실에 눈길을 주지 않는 편이다. 그저 아이스크림을 먹고 죽었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특히 학부모 세력을 중심으로 '사람 잡는 아이스크림', '살인 아이스크림'등의 불명 예스런 꼬리표가 붙게 되었고 롯데삼X, 빙X레 같은 빙과류 기업들이 국정감사에 불려가는 듯 국내 빙과류 업계는 몰락하고 광기와 격동으로 찬 시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빙과류 업계가 차갑게 냉각되고 말았다.

허나 언제나 탄압과 제재로만 모든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은 이 약 40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합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이스크림이 사람의 죽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차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간식거리를 한국만 제재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라는 것임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 북한에서도 에스키모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팔고 있다는 사실에 결국 정부는 국민들의 끝없는 비웃음속에 합법화와 동시에 시장을 개방하

였고 외국의 여러 유명브랜드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니 그 중 하나가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일부 대학교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1 대학교 복도

수업 하나가 끝이난듯 윗층에서 계단을 타고 한무리의 학생들이 이리저리 내려와서 일부는 아랫층으로 일부는 양쪽 복도로 점점 흩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무리에서도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던 지훈 역시 내려가다가 우연히 그의 눈길을 잡은 것이 바로 하X다즈 즉 아이스크림 자판기였다.

지훈 :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어릴 때만해도 공항에서 아이스크림을 밀수하다가 체포되었다질 않나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아이스크림이 나온 부분을 통편집하질 않나 생각해보면 참 웃긴일이 따로 없었는데 모르겠다 화장실이나 가야지

지훈 자판기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러나 5초도 채 안되어서 빠르게 달려서 복도로 다시 나온다.

지훈 : 아...맞다 이 층은 여자화장실이지

지훈은 다시 윗층으로 올라간다. 아이스크림 자판기 주변은 잠시 지나가는 일부 행인들을 제외하고 고요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다 다시 계단 윗층에서 발 소리가 나면서 다시 지훈이 아이스크림 자판기 앞에 선다.

지훈 : 어디보자 뭐가 있는거야? (자판기를 슬쩍 훑어보며) 메뉴들 별 이상한게 다 있네 그런데 가격들이 4200원? 아이스크림 가격이 저게 정상인건가?

지훈은 자판기를 슬쩍보다가 돈을 넣는 투입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것은 주황색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카드 투입구였다.

지훈 : 카드라 요즘 자판기는 많이 달라졌네 비싸서 사먹기도 좀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가야지 뭐

호석 : 실례합니다.

다시 움직이려던 지훈의 등뒤 정확히는 자판기의 우측에서 들려온 호석의 목소리에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본다.

지훈 : 예? 무슨 일이신가요?

호석 : 실례합니다. 자판기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만 잠시 자판기 밑에 좀 보려고 하는데 휴대폰 플래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제겐 업무용이라 카메라 기능이 작동을 안하거든요...

지훈 : 아...예 알겠습니다.

호석이 지훈의 폰을 받고 자판기 밑을 휘적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뭔가를 잡은 듯이 끌어당기니 호석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나사였다.

호석 : 휴 찾았다 나사 감사합니다.

호석이 지훈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지훈은 카메라의 플래시를 끈 다음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지훈 : 아이스크림 자판기 회사 직원이세요?

호석 : A/S 쪽 하청회사입니다. 제 이름은 정호석이고요.

지훈 : 김지훈이라고합니다. 이름이 제가 아는 어디 교수님이랑 많이 닮으셨네요 그런데 이거 자판기는 언제부터 들어온건가요?

호석 : 이 학교에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치할 때 누군가 뭘 실수했는지 작동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제가 도착한거고요.

지훈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잠시 멍하니 바라본다.

호석 : 아이스크림은 아직 안드셔보셨나요?

지훈 : 네 확실히 아직 자판기 뿐이긴 하지만 실물로 보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솔직히 너무 낯선 걸요

호석 : 하긴 이게 합법화된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아직도 잘못된 사실 때문에 여전히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에게 사주는 걸 꺼리는 부모님들도 많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이 금지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지훈 : 80년대 중반에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죽었던 사건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금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호석 : 그런데 대부분은 신경안쓰지만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사인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고 결정난지 오래였어요 그때 시대가 시대인지라 정정보도 같은 것도 잘 없고하다보니 아이스크림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가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기만 했죠. 근데 이게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잘 알던 정부도 합법화에는 4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된데에는 이러한 사건 이전에도 뿌리깊게 박혀있던 부정적 인식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지훈 : 예를 들면요?

호석 : 원래 아이스크림을 옛날에는 유리그릇에다가 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 시절에 결핵까지 유행했는지라 아이스크림을 결핵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금지해버렸어요 근데 결핵이란게 공기로 전염되지 아이스크림으로 전염된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잖아요? 결론은 그 당시에 유리그릇을 따로 소독없이 비위생적으로 사용한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뭐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정부가 제대로 보상해주는 건 꿈도 못꿨죠.

지훈 : 저런...

호석 : 아이스크림 하나까 또 생각난건데 증조할아버지대 부터 재미교포였는지라 저도 어릴적에는 미국에 살았는데 거기는 preferred name이란게 있어요 일종의 별명 같은건데 그때 저는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호키포키라는 이름으로 했었어요 정 '호키포키' 호석인거죠

지훈 : 호키포키요?

호석 : 아이스크림을 파는 행상인들을 말하는데요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저희 집안의 이야기는 처음 미국으로 이주하셨던 증조할아버지 대부터 시작하게 되요 당시 저희 증조부께서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제이콥 푸셀이라는 사람의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서 제이콥 푸셀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본다.

호석 : 푸셀의 스펠링은 F.U.S.S.E.L.L.이에요

지훈 : 찾아보니까 1819년에서 1912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네요?

호석 : 네, 딱 일제강점기 직후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증조부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오래 2차세계 대전 끝나고 대략 한국전쟁 직전까지 살아계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배스킨 라빈스에서 일하셨는데 할아버지 말씀으론 우수사원으로 자주 선정되기도 했고 언젠는 창업주인 어바인 라빈스라는 사람을 진짜 만난적도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진위여부는 모르겠어요 두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지라 진실은 영원히 미궁속에 빠져있겠지요.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집안 내력 때문이신지 하겐다즈에서 근무하고계세요 그래서 저라도 다른 길을 가보겠다는 마음으로 기술을 배우고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되다니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지훈 : 생각해보면 왜 이 나라가 아이스크림을 최악시한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온 것이 카드내역에 있는 것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온 거 있죠? 그 뭐야 속 인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거 도박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아이스크림이라는 것 때문에 경찰을 보는 일이 얼마전 까지만 해도 당연히 되는 거라니

호석 : 아이스크림이란 그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존재 중 하나 일 뿐이예요 사탕무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방법을 발명하여 설탕을 대중화시킨 프란츠 카를 아샤르가 남긴 말로 유명한 '모든 인간은 천국을 느낄 권리가 있다'라는 말 처럼 지훈 씨 당신은 지금 또 다른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으신거고 입장료는 4200원입니다.

지훈 : 그러면 하나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과 연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어떤 메뉴를 추천하실건가요?

호석 : 아이스크림에는 우열이 없어요 다양한 맛이 있으며 사람들의 기호가 제각각일지언정 각각의 맛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요. 그것이 설령 민트초코와 같이 악명높은 테러리스트가 인생 최후의 식사로 골랐던 것이라도요.

지훈 : 하지만 그런 식으로 멘트를 하면 결국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사게 될 것 같은데요?

호석 : (턱을 만지며)일단은 가장 대중적인 바닐라 맛이 무난한 선택이겠지만 마침 자판기에 벨지안 초콜릿이 있네요? 초콜릿하면 벨기에가 유명하단 사실은 한번 짬 들어보셨죠?

지훈 : 벨기에 하면 와플아니었나요?

호석 : 사실 뭐 그것도 맞긴한데 보통 초콜릿하면 스위스랑 함께 벨기에가 유명해요 하지만 그 역사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하지요 벨기에에서 유명한 국왕 하면 레오폴드 2세가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할 거예요 이 사람의 악명은 스탈린, 히틀러와 비견될 아주 쓰레기 그 자체이지요 때는 제국주의가 유행하는 시기에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영국나 프랑스와 같은 주요 열강들이 다 먹어치운지라 남은 곳이 별로 없었는데 레오폴드 2세의 눈에 들어온 나라 그건 바로 콩고였지요 겉으로는 콩고인들을 구하고 문명화 시킨다는 이름으로 탄생한 '콩고 자유국'

지훈 : 마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과 비슷한 어감이네요

호석 : 맞아요 말로는 자유라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콩고의 흑인들은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 하면 처음엔 한쪽 손이 잘리고 또 못 채우면 나머지 손이 잘리고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 그 다음에는 머리가 잘리게 되었지요 이런 미친 실상에 콩고 자유국은 말과는 다르게 사실상 레오폴트 2세의 사유지와 다를바가 없었어요. 이런 곳에서 거의 헐값으로 카카오를 수출했고 벨기에의 유명한 초콜릿 회사들의 성장기반은 이런 국왕의 제국주의적 광기로 수탈해낸 카카오가 그 밑거름이 되었던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요.

지훈 :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입맛이 싹 사라지는 기분인데요?

호석 : 분명 벨기에 초콜릿의 기원은 비극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쿠키 앤 크림 같은 맛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 자판기에는 없는 메뉴고 게다가 애초에 다른 회사 메뉴다 보니 어쩔 수 없네요

지훈 : 그럼 일단은 벨지안 초콜릿으로 할게요

호석의 전화기가 울리자 호석이 전화기를 꺼내서 받는다.

호석 : 예 주임님!, 예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크게 이상은 없는거 같아서 금방 끝낼 것 같습니다. 예 끝나면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호석이 전화를 받으면서 계단 아래층으로 내려감과 동시에 지훈은 자신의 카드를 꺼내 자판기에 꽂아넣으면서 벨지안 초콜릿을 선택한다. 자판기에서 아이스크림 뚜껑을 열자 뚜껑에 플라스틱 숟가락이 함께 붙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입 먹는다. 달콤하면서도 씹슬한 초콜릿의 맛이 지훈의 입안으로 차갑게 퍼져나가지만 지훈은 두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지훈 :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던가? 아픈 것 까지 감당하면서 먹을만하다는 생각은 드네 가격만 빼고

지훈은 먹고 난 다음의 빈통은 정수기 옆의 쓰레기통에다가 던지고 복도 쪽으로 사라진다. 복도에는 아이스크림 자판기와 그외 음료수 자판기 2대와 정수기만이 남아서 고요함 속에서 기계음을 울리고 있다.

마침